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아골 평원을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산 자의 땅에서 주님을 찬미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릇된 일을 저지른 자책감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우리는 지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생을 맘껏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되, 지금 눈물 흘리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웃의 눈물방울 속에 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임을 늘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만이 희망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94:18-19	인도자
♠ 교 독 문 14. 시편 46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56.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함께
성경봉독	I. 눅5:27-32 II. 미4:1-5	인도자
찬 양	홍순구 권사
말 씬	I. 같이 밥 먹을래요? II. 나는 신뢰한다	이성운전도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505.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신뢰하는 이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자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발고랑의 부드러운 흙속에 생명의 씨를 심는 농부들처럼 우리도 생명과 평화의 과종자가 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 많은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회 신앙강좌	성서의 평화(24)/김기석 목사
강사 : 우순덕 원장(햇살 센터)	기도 : 안종일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정진경 집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길	윤성종	최영혜	정경례	김윤정
	헌금위원	구성실	박창운	김준호	김인걸	최영혜	장혜숙

매일 아침

매일 아침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밤에 완성된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과 사과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마6:34, 약4:14).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등지기에, 믿음을 잃거나 저주에 떨어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아침마다 그 날 저녁까지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만드셨다. 마치 옛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게 빛난다(애 3:23). 매일 아침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성경은 아침을 경이에 가득 찬 시간으로 묘사한다. 아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자(시46:5) 눈물로 지새운 밤이 지나간 후의 기쁨의 시간이며(시30:5),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자(슥 3:5) 일용할 양식을 배분하는 시간이다(출16:13 이후). 동이 뜨기 전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나가셨고(막1:35),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아침에 디베랴 바다의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요21:4).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창19:27, 출24:4, 욥1:5). 잠도 그들을 붙들 수는 없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을 마중하러 달려나간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는 복된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지난밤의 혼돈된 꿈과 어두운 형상들을 몰아낸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악마적 분위기,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는 단지 우리가 아침에 몰아내지 못한 지난밤의 유령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오늘 하루를 망치게 하려고 우리를 사로잡는다. 새날의 아침은 우리의 계획과 걱정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은총과 거룩한 임재를 위한 시간이다. 근심으로 인해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시 127:2). 아침마다 우리는 오늘에 대한 걱정이나 당장에 감당해야 할 일의 부담이 아니라,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

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사50:4) 주님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신다. 우리의 귀가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분의 목소리를 아침 첫 시간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아침의 고요를 예비하셨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만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앞서 일용할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침 시간은 기도와 공동 예배를 위한 조용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 외에 하루의 염려와 과제, 그리고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시고 우리에게서 찬양과 기도를 바라시는 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질서를 잡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일에 관한 한 ‘형식적’이라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무질서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복음의 자유와 훈련 부족은 분명히 구별된다. 과격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망치지 않으면서 충실하게 영적인 수행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영적 수련 과정을 익혀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기도와 명상을 위한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실천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 때문에 (행6:4)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역이 공허하고 관계적인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구절을 명상하며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 속에서 굳건하게 설 자리를 마련해 둔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디트리히 본회퍼, <<시편명상>>, 열린서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 때부터, 그는 영적 지식의 조명을 바라는
뜨거운 갈망을 놓지 않으며,

마침내 그 힘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현세 안에 있지만, 동시에 현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몸 안에 거하지만, 동시에 몸을 떠나 있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고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의 불로 계속 타오르며,
불가항력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후5:13).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고광승 이춘희 박규석 박경선 박영숙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이선림 임 영 정경례 임창선 조항신 최종원 임승동 백혜숙
 박경원 권미숙 조병무 송양진 조문규 진정숙 임보람 김철수

월정헌금:

김명순 김현영 정원석 권혁순 박혜경 김승현 김수진 박석희 박어진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황자순 황원순

감사헌금:

김기석 김지혜 권미숙 장재영 김재영 김종철 문금석 한선희 이건화
 오정숙 안종일 정현주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장동윤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정복순 조윤기 방문성 박혜경 홍순구 안홍숙 김미순 이선림 오진훈
 노순옥 배근수 김영한 이희균 무명1 (누계-49,43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하 재 두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정 은	
가버나움	안 홍 숙	오 현 정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